서부권 섬 주민 건강 지킬 '전남광주512호' 취항

142억 투입…198t급 새 병원선

6개 시·군 90개 섬 5천여명 진료

의과·한의과·치과 등 41종 검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30일 목포 남항 관공선부두에서 열린 '전남광주512호 병원선 취항식' 행사에서 내빈들과 취항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서부권 섬 주민 5천여명의 건강을 책임질 새 병원선 '전남광주512호'가 공식 취항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512호는 지난달 30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서부권 6개 시·군 90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치과 진료와 방사선·임상병리 등 41종의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치매와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실시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전남광주512호는 선령 23년의 기존 전남512호를 대체하기 위해 국비 95억원과 시비 47억원 등 총 142억원을 투입해 건조했다. 2023년 7월 설계를 시작해 올해 8월 선박을 인계받았으며, 약 2개월간 시범운항을 거쳐 공식 운항을 시작했다.

새 병원선은 기존 170t급보다 큰 198t급으로 건조돼 의료진과 섬 주민 등 최대 44명이 승선할 수 있다. 섬 지역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했고, 전기복합추진방식(하이브리드)을 적용해 운항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높였다.

취항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의료·보건기관 관계자와 섬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형배 시장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선 안 된다"며 "어디에 살든 건강할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취항하는 병원선 전남광주512호가 서부권 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권에서는 전남광주511호가 5개 시·군 77개 섬을 순회하며 주민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목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글로벌 산업 거점 '도약'

357억 투입…목포신항에 4층 규모 건립

단지 개발부터 운영·정비까지 통합 지원

강성휘 시장 "일자리창출·경쟁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300억원대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목포해상풍력 플랫폼센터'를 목포신항에 개관하고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의 거점 육성에 나섰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신항 플랫폼센터에서 강성휘 목포시장과 백승주 전남광주시 부시장, 전남풍력협회·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센터는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으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총 357억원이 투입됐다.

목포신항 내 4천995㎡ 부지에 연면적 3천262㎡,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다. 1층 홍보관과 편의시설, 2층 대회의실, 3층 기업입주실, 4층 통합관제센터 등 해상풍력 산업 지원시설을 갖췄다.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기상·해양 정보 분석과 기자재 물류 관리, 해상 선박 감시, 발전단지 관리 등을 맡아 단지 개발부터 운영과 유지보수(O&M)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 7월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련 기업 8개사가 입주해 공동연구와 산업 정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보수 분야까지 지원 기능을 넓혀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울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플랫폼센터가 서남권의 기업과 기관,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광주시 'GGM 상생발전 TF' 꾸린다

노동·산업·경영 전문가 등 참여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 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잠정합의를 계기로 상생발전과 미래전략 마련에 나선다.

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지난달 29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 상생발전 및 미래전략 전담팀(TF)'을 구성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GGM 노사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단식과 천막농성을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 담당 부서와 노동·산업·경영 전문가가 참여하고 관계 부서가 실무를 지원한다.

TF는 현대자동차와 GGM 경영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공공 지원과 생산·고용 확대, 경영 개선, 새로운 상생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빛그린산단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검토한다.

안정적인 생산물량과 후속 차종 배정, 2교대 전환 여건,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등 현대차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GGM 노사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권고안을 바탕으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근로시간면제 연 2천700시간과 노조 사무실 제공, 정기상여금 인상, 상생지원금 지급 등이 담겼다.

윤 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지속적인 신뢰로 발전시켜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상생형 일자리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서울·부산 출발 '남도한바퀴 1박2일' 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해 남도의 대표 명소와 음식을 즐기는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박2일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수도권과 영남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동일 코스의 시중 여행상품보다 가격을 30-40% 낮췄다.

우등버스로 유료 관광지를 포함한 주요 명소 6곳을 둘러보고, 지역 대표음식 4식과 호텔 숙박을 제공한다. 관광 가이드가 동행해 여행지 해설과 숙소·식당 이용을 돕는다.

서울 출발 상품은 신안 퍼플섬과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대흥사, 강진만 생태공원 등을 둘러보며 나주곰탕과 회정식, 강진 닭코스 요리 등을 맛본다.

부산 출발 상품은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오동도,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을 방문하고 꼬막비빔밥과 꽃게장, 광양불고기를 즐길 수 있다.

부산 출발 상품은 7·8일, 서울 출발 상품은 12·13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각각 7회 운영한다.

오미경 관광정책과장은 "가성비 여행으로 인기를 얻은 계절상품의 수요를 반영해 체류형 상품을 마련했다"며 "남도의 명소와 맛을 즐기며 오래 머무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김치축제 사흘간 5만1천명 찾아

'제33회 광주김치축제'에 사흘간 5만1천여명이 찾은 가운데 김치 랜덤팩과 이색 굿즈 등 젊은 감각을 더한 콘텐츠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달 23-25일 광주청사 광장과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는 김치를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상품과 SNS 홍보로 참여를 이끌었다. '김치 티셔츠', '김치가 최고심', 타포린 백팩 등 굿즈와 다양한 김치를 무작위로 맛보는 '김치 랜덤팩'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김치마켓과 농부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와 전통시장 김치, 지역 농수산물을 선보였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 매진됐다.

김치체험학교와 김치놀이터, 소금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 공연을 더해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비가 내린 날에는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해 방문객 불편을 줄였다.

박남언 광역행정본부장은 "김치에 젊은 감각과 문화 콘텐츠를 더해 세대 간 공감대를 넓혔다"며 "젊은 세대가 즐겨 찾고 지역 상생을 이끄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